

모디 Wave 건재, 집권 2기 출범

- 안보와 민족주의, 개인 인기, 야당 분열이 집권 요인 -

김용식 수석연구원, 철강연구센터 (sendmail@posri.re.kr)

목차

1. 2019 인도 총선: BJP의 압도적 대승
2. 선거 결과: 모디 브랜드와 안보 이슈가 승인
3. 향후 전망: 고성장 지속과 정계 개편 본격화
4. 요약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2019 인도 총선에서 인도국민당(BJP)이 단독 과반 이상의 압승을 거두었음
 - 4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38일간 치러진 총선에서 파키스탄 공습을 계기로 안보와 민족주의를 강조한 집권여당인 BJP가 542석 중 303석으로 압도적 승리
 - 일자리 창출 실패와 농민불만 증가, 2018년 내륙 3개주 선거 패배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모디(Narendra Modi, 1950년생)라는 강력한 리더를 내세워 재집권
- 모디 총리의 인기와 결단력, 강한 인도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이번 총선의 승리 요인
 - 나렌드라 모디의 청렴함, 강인한 리더십과 결단력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인기가 국민들에게 최고의 무기로 작용
 - 파키스탄 공습을 계기로 강조한 국가안보와 민족주의가 힌두교도들을 결집. BJP의 정확한 정세 판단과 선거 전략이 야당보다 우위
 - BJP의 자금력과 선관위를 통한 관권 선거, 적절한 미디어 통제 등도 한몫
- 이번 총선을 계기로 BJP의 일당 지배는 모디가 견재하는 한 지속될 것이며 모디의 건강 여부가 후계구도를 좌우할 것
 - 전통지지 지역인 힌디벨트뿐만 아니라 그동안 기반이 없었던 북동부 지역 공약에 성공하면서 야당인 국민회의당(INC)을 제치고 확고한 전국 영향력 확보
 - 반면 INC는 52석에 그치면서 라훌 간디의 지도력에 의구심이 더욱 커졌으며 왕조정치에 대한 청년층 중심의 부정적 평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관건
 - 야당의 대패와 전국적 기반을 확대한 BJP의 일당 지배는 길어질 것으로 전망
- 집권 2기를 시작한 모디 정부는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개혁 추진 등 경제 이슈 해결에 주력할 듯
 -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이 우선시될 것이며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세수 확대와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될 여지가 큼
 -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와 해외자본유치를 위한 노동법 개정, 토지수용법 개혁이 필요하나 농민들과 근로자들 설득과 열세인 상원에서의 통과 여부에 관심 집중
- 모디 정부 2기 출범으로 지금까지 추진했던 경제정책들의 지속성이 보장되고 개혁 추진에 가속도가 붙어 인도 시장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재집중될 것임. 인프라 투자와 해외직접투자가 본격화 될 것이지만 Make in India 확대 등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1. 2019 인도 총선: BJP의 압도적 대승

□ 인도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총선(General Election 2019)이 38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집권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압승

○ 지구 최대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인도 총선

- 만 18세 이상의 9억 1000만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선거로 4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7단계로 나뉘서 실시
- 전자투표기(EVM, Electronic Voting Machine)를 사용하며 투표란에 NOTA (None of the Above)를 표기하여 유권자들의 후보자 뽑지 않을 권리를 인정

○ 향후 5년간 인도를 이끌어갈 차기 정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이벤트

- 543석의 의석을 놓고 8,026명의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졌으며 과반인 272석 이상을 얻은 정당이 향후 5년간 연방정부를 이끌어가게 됨
- 단일 정당이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다른 지지정당과 연합정당을 구성해 집권할 수 있음. 연합정당이 지지를 철회할 경우 다른 정당을 포섭해 과반을 넘겨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선거를 새로 치러야 함

□ 모디의 BJP, 파키스탄 테러 배후지 공습으로 완벽한 승기 장악

○ '19년 2월까지 근소한 우위 전망이 지속되어 불안감 노출

- 2017년 12월 구자라트 주의회선거를 시작으로 실업률 증가, 고용 없는 성장, 농민고통(수매가격 하락, 부채 증가) 증대 등이 불거지며 모디 재집권 가능성 감소
- 2018년 11월 BJP의 전통 지지주였던 라자스탄, 마드야프라데시와 차티스가르 3개주 주의회선거에서 국민회의당(INC)에 패배하면서 우려감 증폭

○ 모디의 파키스탄 공습을 계기로 안보와 민족주의를 내세워 지지율 반등

- 2월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사건의 주범으로 파키스탄을 지목하고 배후지인 발라코트(Balakot) 공습. 테러 활동에 대해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인한 리더십과 국가 우선 이미지 강조. 지지율은 30%서 60%로 급반등
- 3월 27일에는 “인도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저궤도 위성 격추에 성공”했다며 강력한 인도를 이끌 최적의 지도자로 모디 홍보

□ 542석 중 BJP 단독으로 303석, 지지정당을 합할 경우 353석 확보

○ 303석 확보로 압승(Landslide Victory)

- 하원의석 543석 중 금권선거 논쟁이 불거진 Vellore 지역구 취소로 542석을 놓고 경쟁했으며 예상 밖으로 BJP 단독으로 303석을 확보하면서 압도적 승리
- INC는 2014년보다 8석이 증가한 52석으로 2회 연속 부진. 전국정당으로서 위상 약화가 불가피하며 향후 BJP에 대응할 수 있는 전국정당 역할 어려울 듯

○ 연합정당을 포함한 NDA 의석은 353석으로 17석 증가

- 마하라슈트라주의 시브세나당이 18석, 비하르주의 JD(United)당이 16석으로 비중이 가장 크며 기타 지지정당들은 16석에 불과
-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지정당의 NDA 내 위상과 영향력 축소 불가피. BJP의 정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2. 선거 결과: 모디 브랜드와 안보 이슈가 승인(勝因)

□ 모디 개인 영향력과 BJP당 아미트 샤 총재와의 시너지가 가장 큰 승인

○ 모디 브랜드(Modi Wave)와 안보가 경제 이슈를 압도

- 모디 총리의 “결단력, 청렴성, 강직한 리더, 워크홀릭”이라는 이미지, 즉 모디 웨이브가 여전히 국민의 표심 확보에 중요 요인으로 작동
- 파키스탄 공습으로 국가안보와 민족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의 지도자로 각인. MP주 선거에서 모디는 “투표기 버튼을 누르는 것을 정당 선택이 아닌 테러리스트의 가슴을 겨냥해 총을 쏘는 것처럼 생각”하라고 감정에 호소
- 일시적인 일자리 부족과 농민 고통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개혁과 개발을 추진하며 강인한 인도를 이끌 수 있는 최적의 리더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정

○ BJP당 총재인 Amit Shah와의 시너지와 선거 전략의 우세

- 모디 총리 지근의 협력자인 아미트 샤 총재와의 시너지를 활용하여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북동부 지역 공약을 결정. 모디의 선거 유세 지원 덕분에 23석을 확보하면서 전국 정당으로서 위상 강화에 성공
- 기본 슬로건을 “모디 정부를 한 번 더”로 정한 다음 약점으로 지적되던 경제적 요인은 언급하지 않고 강한 인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실천력을 강조

□ 표심 확보를 위한 약자 계층 포섭과 야당 대비 월등한 자금력과 조직력

○ 표심 확보를 위한 각종 선심정책 발표

- 2에이커 이하의 토지를 소유한 저소득 농민들에게 매년 6000루피(약 102,000원) 지원과 축산업 및 수산업 종사자들의 대출이자 2%를 보상
- 비공식 부문 종사자들 중 월급여 15,000루피 이하의 여성, 기사, 배관공, 이발사 등 근로자들에게 60세 이후 월 3000루피 연금 지급(월 100루피 납입)
- 경제적 약자 계층 대상으로 공무원, 대학입학 등 10% 할당 정책 실시

○ 선거채권(electoral bond) 도입으로 정치자금 기부 제한

- 2011년 11월부터 공식적인 정당 기부는 현금이 아닌 선거채권으로만 가능하도록 제도 변경
- 5월까지 발행된 선거채권의 95%가 BJP에 집중되었으며 비공식 현금 및 정당 지원도 기업친화적인 BJP에 집중되었다는 것이 통설

○ 조직 능력과 방송 등 미디어 부문도 우위

- 탄탄한 조직력과 집권 5년간 준비한 선거전략을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통제를 통해 집권여당인 BJP에 유리하게 선거 일정 조정
- 총선에 맞춰 나모(NaMo) TV를 개국하였으며 타타스카이, 디시(Dish) TV 등 주요 위성 케이블 채널을 통해 모디 총리의 소식을 실시간 전파. NaMo 앱을 통해 실시간각 소식을 전송
- BJP의 언론통제를 통해 언론에 공표되는 각종 정책과 선거 공약 등에서 야당 대비 노출빈도가 압도적 우세를 보여 국민 설득에 앞섬

□ 야당 총재 라훌 간디의 지도력 부재와 야당들의 분열도 BJP 승리에 기여

○ 미래 지향적인 비전 제시가 아닌 여당 비판과 선심성 정책에만 집중

- 선거 이슈를 미래 비전이나 인도의 발전이 아닌 집권 여당인 BJP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였고 선심성 정책만으로 표심을 확보할 수 있다는 오판으로 선거 전략 실패
- “국민보호 역할을 하는 가드”가 되겠다더니 오히려 “가드가 도둑”이 되었다며 BJP의 전투기(라파엘) 도입 스캔들을 강조하였지만, 이는 오히려 INC의 부정부패를 들추면서 역작용을 일으켰음

- 농민부채 탕감과 최저소득제 도입 등 선심성 정책을 도입하였지만 BJP가 동일한 선심성 정책을 발표하면서 영향력 급감
- 2018년 11월 내륙 3개주 선거 승리가 오히려 독으로 작용
 - 지난해 힌디어를 사용하는 전통적 여당 지지지역이었던 3개주에서 INC가 대승한 결과, 총선에서 해볼 수 있다는 자만감으로 독자 노선을 추진한 것이 야당과의 연정 실패 요인으로 작용
 - “BJP 대 反BJP 구상”을 위한 양보가 아닌 INC를 우선하는 “의석 수 협상”으로 야당들의 반감을 초래. UP주에서는 야당연합에 참여하지도 못했으며 델리서도 AAP와 결별하는 등 각개 전투로 표를 분산시키면서 BJP의 승리에 일조

3. 향후 전망: 고성장 지속과 정계 개편 본격화

□ 과반을 훌쩍 넘는 303석 확보로 정책 추진력과 지속성 담보가 가능해진 점이 최고 강점

- 지지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감한 개혁 추진과 1기 정책의 지속성 담보 가능
 - 303석이라는 의석을 바탕으로 1기 때 추진한 Make in India, Digital india 등 각종 이니셔티브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임
 - 노동법과 토지수용법 등은 개혁이 필요하나 농민들과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임. 모디 정부에 대한 현재의 지지율을 감안할 때 새로운 선거 이슈가 등장하기 이전인 향후 1~2년이 추진 최적기임
- “상원 의석 과반 부족”으로 밀어붙이기식 개혁은 어려울 듯
 - 245명의 상원의석 중 BJP가 73석이며 지지정당을 합한 NDA는 101석에 불과하여 개혁정책을 힘으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임
 - 개혁법안 통과 등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협력전략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도 관심

□ 일자리 창출, 투자확대, 소비활성화 등 경제 이슈 해결 필수

- 매년 유입되는 약 1200만명의 일자리 창출
 - 신규 유입되는 청년층 인력과 기술이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 감소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민족주의를 내세운 모디 총리를 지지했지만 일자리 창출이

계속 실패할 경우 차기 선거에서도 승리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

-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제조업 육성 정책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으며 생산공장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와 수입제품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고학력 청년 학생의 start up 지원 제도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사업 성공 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음

○ 투자 분위기 회복을 통한 고성장 기반 확대

-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고 있는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투자 유도를 위한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음
- BJP의 재집권과 안정적 의석 확보로 민간기업의 투자분위기가 회복될 것은 긍정적이지만 은행 부문의 대출금리 인하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
- GDP에서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12의 34.3%에서 2018-19는 28.9%로 급감하여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소비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인하도 추진

- 소득세 인하를 통한 중산층과 급여 생활자들의 소비 증가로 내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며 내수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 기반 확대가 필요
-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 선임을 감안하면 내수 소비 분위기 전환 없이는 내구소비재와 자동차 소비 촉진이 어려운 상황임

□ 거시경제 건전성 추진을 위한 재정·무역적자 축소, 은행건전성 확보

○ 재정적자 축소: 국가신용등급의 Junk Bond 추락 방지 요건

- 정부 주도의 투자확대로 재정적자가 2018-19에 GDP의 3.4%를 기록하자 글로벌 신용평가기관들은 GDP의 3% 이하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음
- 금년은 저소득 농민 연금지급과 소득세 납부 기준 완화, 모디케어 등으로 적자 축소가 용이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수 확대와 민간투자 확대 유도가 필요

○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수출장려와 수입억제 정책 확대 불가피

- 석유 수입의존도 축소 등 수입억제와 제조업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강력한 수입대체 정책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정책 수립에 집중할 것임
- Make in India에서 강조한 수출기지화를 위한 최종재 및 중간재 수입 억제 등

보호무역이 확대될 것이며 이로 인한 현지화와 생산기지 건설 중요성이 증가

○ 은행건전성 확보를 통한 시중유동성 확대 필수

- 은행 건전화를 위한 자기자본 확충과 더불어 국영은행 통합과 민영화 등 은행 부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전체 용자의 33%를 점하고 있는 그림자금융 등 비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과 자금 지원을 통한 신용제고 기능 강화 필요
- 모디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전담 은행(MUDRA: Micro Units Development & Refinance Agency Bank, 영세기업가에 100만 루피 용자) 기능과 역할 제고 등이 수반되어야 함

□ 개혁 지속과 공기업 민영화 추진

○ 투자 제고 및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노동법과 토지수용법 개혁 절실

- 복잡하고 구시대적이며 근로자 해고가 어려운 노동법 개정과 대형 공장 건설에 필요한 토지 수용을 어렵게 만드는 토지수용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
- 모디 1기 출범 때 강조했던 3대 개혁부문 중 세제 개혁인 GST만 통과되었을 뿐임. 개혁 성공 시 대규모 FDI 유입 등으로 7% 이상 고성장 지속될 것임

○ 비효율적이고 적자 투성이인 공기업 민영화도 개혁 대상

- Air India 등 수많은 공기업들은 높은 인건비와 저효율성 등으로 정부 재정 적자의 주범으로 모디 정부 1기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는 거의 없었음
- 항공, 철강, 은행 등 다양한 부문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이 본격화될 경우 경제활성화와 다양한 인수 기회가 발생할 수 있기에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함

□ BJP의 일당 지배 체제 지속과 야당들의 궤멸로 정계개편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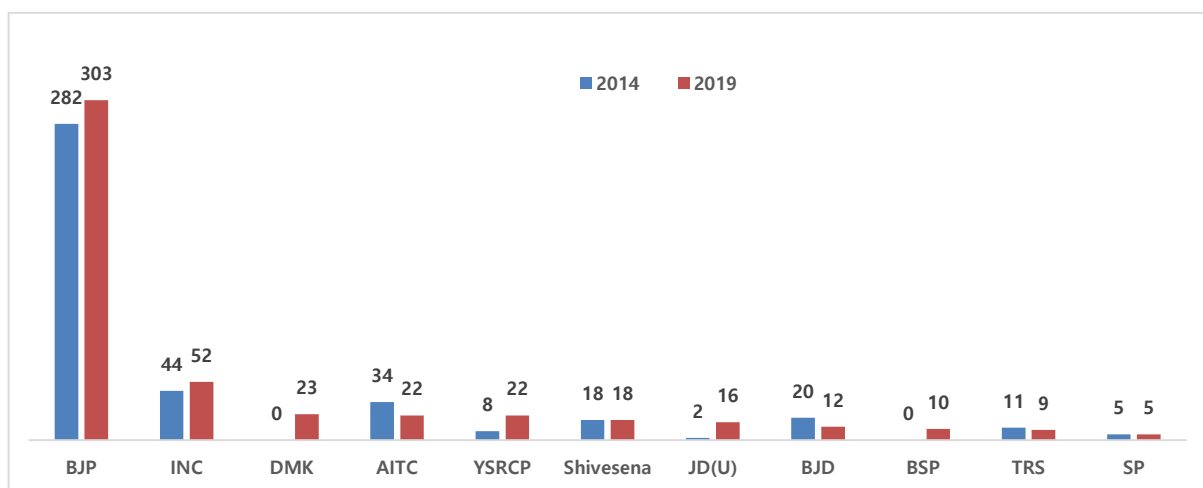
○ BJP는 전통 지지기반이었던 중부의 힌디어 사용지역뿐만 아니라 북서부의 안정적 지지를 바탕으로 전통 약세였던 북동부도 공략

- 우타르프라데시주의 9석과 자르칸트와 라자스탄주에서 각각 1석 감소에 그쳤으며 구자라트, 라자스탄, 하리아나, 델리와 마드야프라데시주에서는 완승
- 전통 약세였던 웨스트벵갈에서는 2석에서 18석으로 오디샤주는 1석에서 8석을 확보하면서 케랄라(0석)와 타밀나두(0석) 등 일부 남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음

○ **확고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King Maker 역할을 즐겼던 지역정당들은 총선 패배로 중앙정부에서 역할 급감**

- 웨스트벵갈의 마마타지 주총리는 선거전 패배를 인정하면서 주총리 사퇴를 발표했으나 당의 만류로 해프닝으로 끝났음. 18석이나 빼앗아 간 BJP의 완승으로 새로운 정치적 입장 정립이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안드라프라데시주의 나이두는 총선에서 3석에 그쳤을 뿐 아니라 동시에 치러진 주의회 선거에서도 대패하면서 정치적 위상이 붕괴. King Maker 역할을 통해 위상을 강화하려는 전략에서 5년 후를 기약해야 하는 입장으로 전략했음
- 오디샤주 역시 파르나익을 중심으로 하는 BJD가 20석 가운데 12석에 그쳤으며 BJP는 8석을 확보
- 이번 총선으로 카스트나 종교에 기반을 둔 지역정당들의 위상이 급격히 약세를 보임으로써 확고한 지지기반을 가진 BJP의 일당 지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주요 정당별 의석 수 변화〉



자료: 인도선거관리위원회(<https://results.eci.gov.in>), 인도언론종합, POSRI 정리

4. 요약 및 시사점

□ **2019 총선에서 BJP가 예상 밖의 압승을 거둬 안정적 정국 운영이 가능할 전망**

○ **542석 중 과반 이상인 303석(지지정당 포함한 NDA는 353석) 확보로 연합 정당의 지지 없이 독자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

- 전통적 지지지역에서뿐 아니라 북동부 지역에서도 의석수를 확대하면서 향후

이들 주의 주의회선거에서도 돌풍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BJP의 '강한 인도와 개발 중심 어젠다'가 탄력을 받아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개혁 및 사업하기 좋은 여건 개선 등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임
- 과반 이상의 안정적 의석을 확보한 가운데 힌두중심 민족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무슬림 등 소수 종파를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가 과제로 대두
 - UP주에서 람사원 건설 등 힌두중심주의 사상 확대로 무슬림을 중심으로 하는 소수 종파에 대한 탄압 위협이 증가할 수 있음
 - 소수 종파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주의를 적극 받아들이고 강력한 의석을 바탕으로 자만감에 빠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독단주의도 경계해야 함

□ 거대 시장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 집중될 듯

- 저임의 청년 인구를 활용하기 위한 제조업 활성화 지속
 - Make in India가 목표로 했던 GDP 내 제조업 비중 25% 달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며 이로 인한 다양한 사업기회가 증가할 것임
 - 완성재뿐 아니라 중간재의 국내생산 증가를 위한 수입대체와 보호무역 강화에 대비한 단계적인 현지화 노력, 서플라이체인 구축 등 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
- 정부의 인프라투자 확대와 소비활성화로 7% 이상 고성장 전망
 - 열악한 인프라 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 항만, 철도 개선이 지속됨으로써 건설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임
 -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인하 등 소비 장려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금년 들어 침체를 겪었던 자동차와 내구소비재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철강재 등 연관 산업도 동반 성장할 수 있음
- 안정적 정부 구성과 수입 대체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역시 증가할 것임
 - 모디 정부 2기 출범과 안정적 의석수로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다국적 기업들의 인도 투자가 증가할 것임
 -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한 경쟁우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다양한 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인프라 투자 확대에 의한 건설 산업과 가전 등 안정적 성장 가능

- 도로, 항만, 철도 등 인프라 투자 확대에 의한 건설업과 모디 2기 출범으로 인한 소비 분위기 회복으로 가전, 자동차 등도 고성장할 것임
- 일자리 창출을 위한 Make in India 재정비와 Make in India 2.0이 본격화될 것이며 농민고통 감소를 위한 관개농업 확대와 수자원관리 등에 집중할 것임

○ 성장 기회는 커질 것이지만 보호무역주의도 강화될 전망

- 미·중 통상마찰 지속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이 확대되고, 7% 이상 성장하고 있는 인도 시장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시장 방어를 위한 보호무역주의도 더욱 강화될 전망
-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수입대체 정책과 맞물려 완제품 생산을 위한 중간재 수입에 대해서도 관세 인상과 AD 부과 등 보호무역조치도 강화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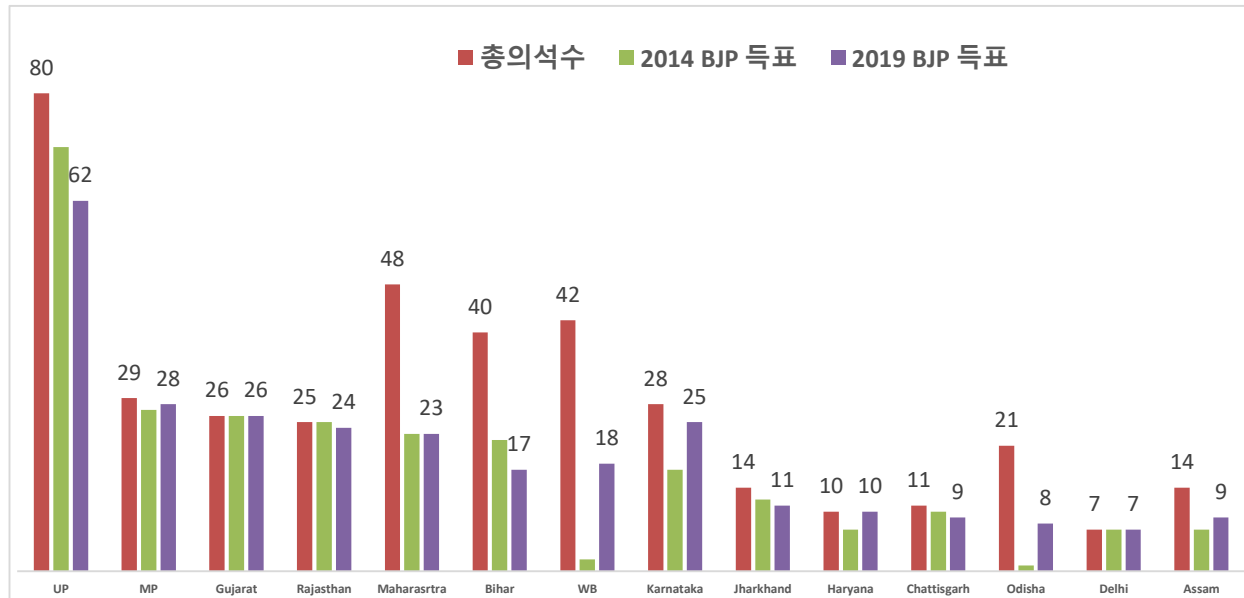
○ 장기적, 단계적 확대 전략을 통한 전망

- 철저한 정보 수집과 시장 분석이 전제되어야 함. 고객과 시장동향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에 대한 조사와 현지 출장 등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
- 진출 시기에만 집중한 선부른 진출전략보다는 시장과 경쟁상황, 사업 관행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 지역과 사업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
- 거대한 인도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특정 주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지역과 제품을 확대해가는 확장 전략이 바람직. 초기 진입을 작게 시작해서 경험을 쌓고 거래선을 확보한 점→선→면으로 확대해가는 전략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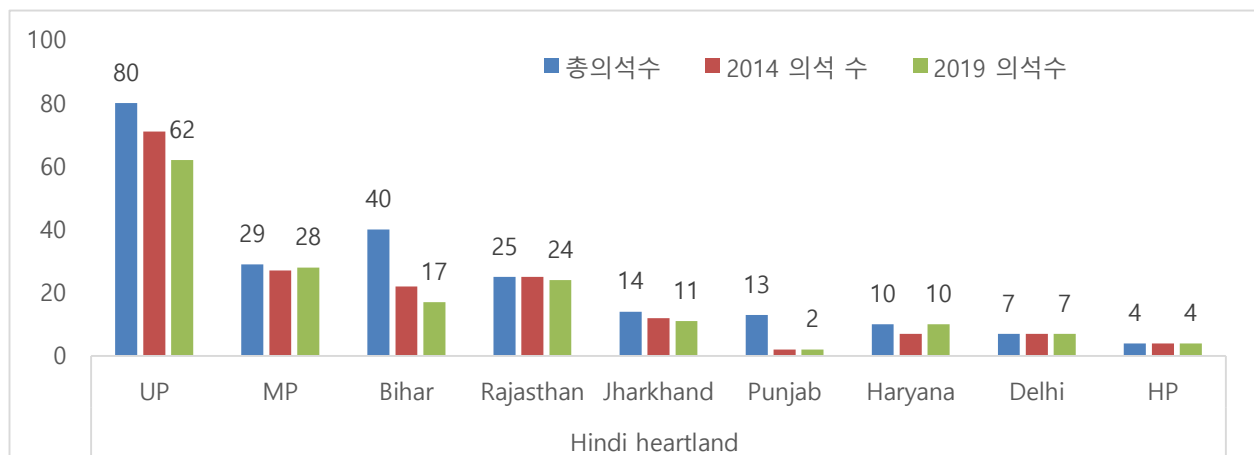
○ 어떤 무기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함

- 인도 시장이 재조명되면서 시장 선점과 성장기회 확보를 위한 인도 기업들과 다국적 기업들간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임
- 성장 기회 확보를 위해서는 고객 니즈에 맞는 제품과 품질 수준을 갖추어야 하며 경쟁사 대비 원가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함
- 진입방법으로 현지 시장을 잘 아는 기업과의 합작도 전략적 옵션 중의 하나로 고려해야 함. 파트너의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의 핵심우위를 제외하고는 다 줄 수 있다는 자세가 중요. 자사의 핵심우위는 유지하면서 파트너가 가진 시장과 고객 관련 지식 및 현지 네트워크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
- 아직은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인도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적정 품질의 제품을 경쟁사보다 1루피라도 싸게 공급”하는 것임. 이 시장 상황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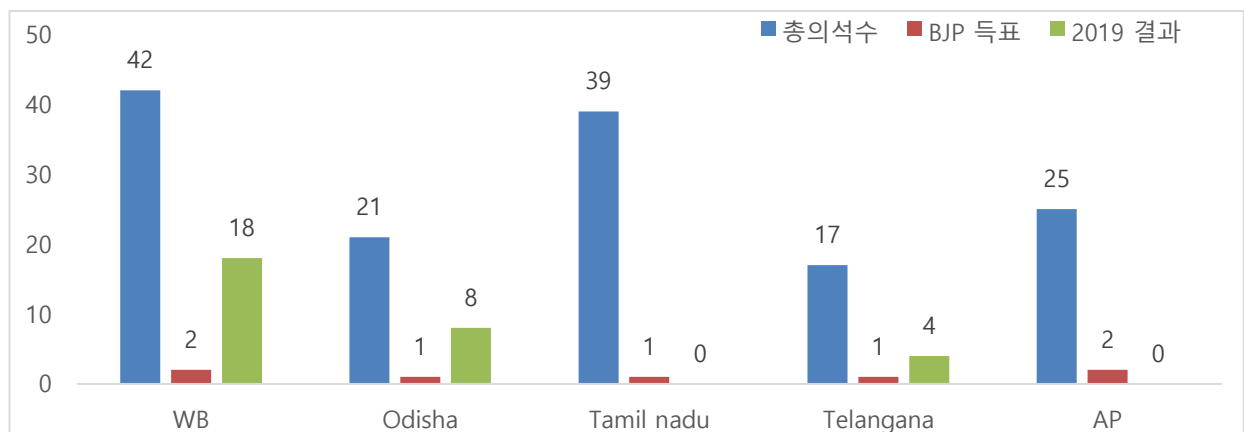
[첨부 1] 주요 주별 BJP 의석수 변화



[첨부 2] 힌디벨트 지역의 BJP 의석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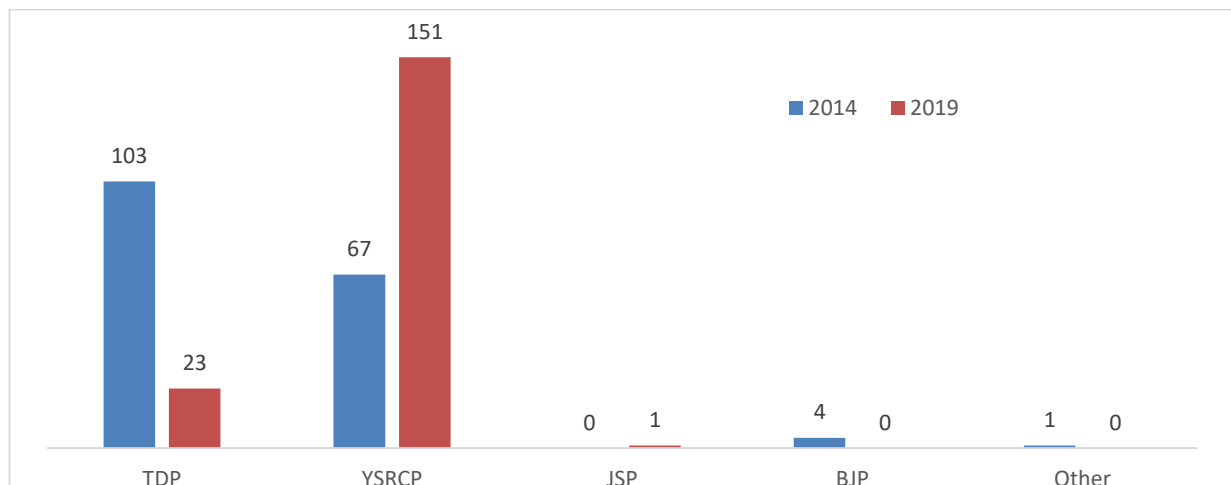


[첨부 3] 지역정당이 강세인 5개 주의 BJP 의석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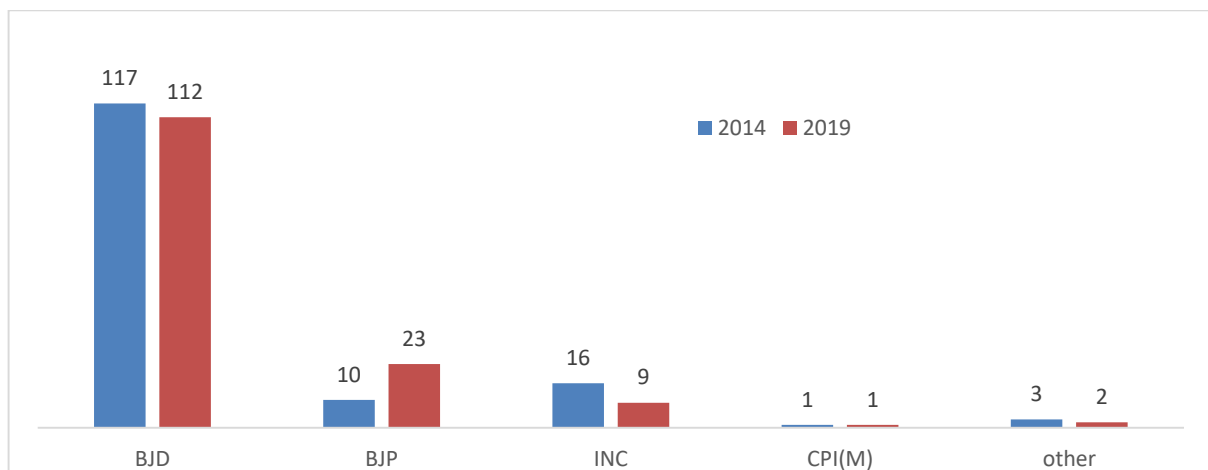
[첨부 4] AP주 주의회선거 결과

- 총선과 동시에 치러진 주의회선거 결과 나이두 전 주총리를 중심으로 한 TDP당이 80석을 잃은 반면 Y.S. Jaganmohan Reddy(1972년생)가 이끄는 YSR Congress는 84석이 증가한 151석으로 집권. 정권교체로 인한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 총선에서도 YSR Congress는 2014년의 8석에서 22석으로 14석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신흥 정당으로 급 부상



[첨부 5] 오디샤주 주의회선거

- 오디샤주는 나빈 파टना익이 이끄는 BJD가 112석으로 5연임 성공. BJP는 10석에서 23석으로 세를 확대한 반면 INC는 16석에서 9석으로 감소
- 총선에서는 BJD가 22석에서 8석이 줄어든 12석을 획득한 반면 BJP는 1석에서 8석으로 7석을 더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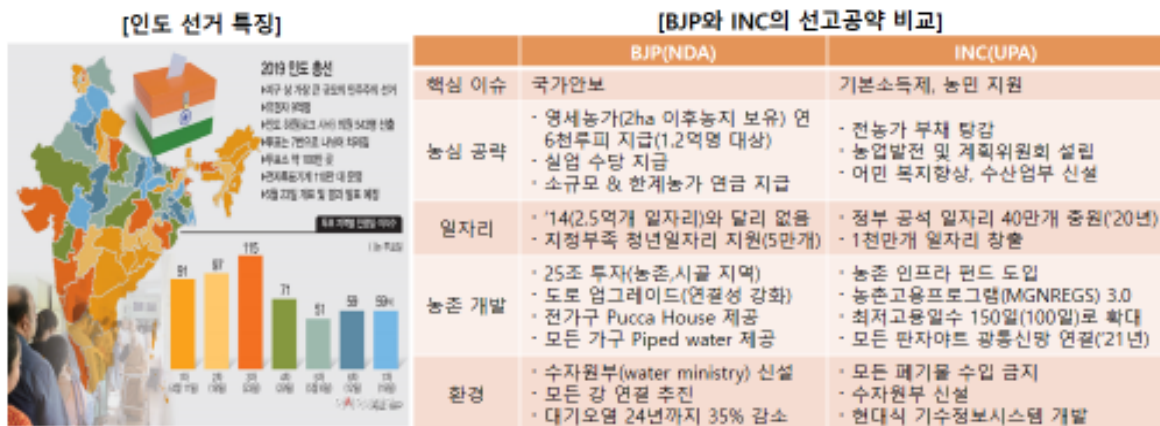
[첨부 6] 총선 선거 공약 비교

2. 총선 선거공약

□ 국가안보(ND)와 선심성 정책·모디 경제 실정 평가(UPA) 대결

■ 안보 vs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과 논쟁 지속

- ND의 선거 이슈: "모디 정부를 한번 더" 라는 슬로건 하에 2월 파키스탄 공습 이후 급등한 지지율을 전제로 국가안보와 민족주의를 강조. 4월 21일 श्रीलंका 테러 사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모디 총리는 "인도의 안보 수준이 자신 집권 이후 향상됐다고 강조. 안보이슈를 내세우면서 경제정책 실패와 일자리 창출 등은 회피하는 전략도 성공 요인
- 야당인 INC는 반면 '경제실정과 일자리 창출 실패를 핵심 이슈로 부각'시키고자 하나 안보 이슈에 밀리고 라훌라칸디의 리더십 약세와 연합전선 구축(델리에서 AAP와 연정 실패, UP주에서 SP·BSP과 독자 투쟁) 부진 등으로 참패



* 기본소득제(NAY): 수급 자격이나 조건 없이 무조건 국민에게 최저 생활비 지급, 소득 하위 20% 가구에 월6천루피 월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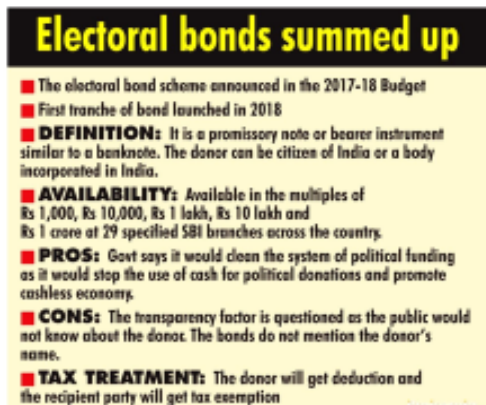
[첨부 7] 선거채권 개요

※ 선거채권

□ 선거채권(Electoral Bonds) 도입. 95% 이상이 BJP에 집중

■ FY18 예산안에서 처음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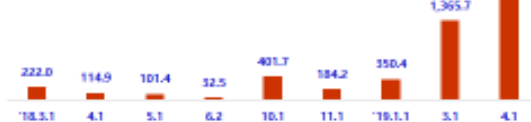
- SBI가 5개 종류의 채권(일종의 약속어음) 발행, 기업이나 개인이 인터넷 Banking이나 일람불어음, 수표로 구매
- 구매자: 채권 구입 시 후원 정당의 이름을 무기명으로 지정. SBI는 이 채권을 정당계좌로 예치. 15일내 찾아서 사용하면 됨
- 후원자: 세금공제(Tax Deduction) 수혜, 정당 역시 세금감면(Tax exemption) 받음
- 수혜 정당: 기부 받은 금액에 대한 상세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함
- * 기업 기부 한도: 2013 기업법(평균 이익의 7.5% 이내, 2017년 Finance Bill은 무한대



▷ '18.3.1일 처음 발행. 처음 발표 뒤 10일 기한 내 구매

'18.3.1~19.1.1 140.7억 루피가 기부

'19.3.1~4.1 2회에 362.2억 루피 기부



▷ '19.4 월 판매 채권 중 4개 도시가 82.3% 점유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